

'시민과 함께 건강, 함께 안전, 행복한 전주'

전주시 보건소,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정신건강 관리 등 보건·의료분야 7대 추진 전략 제시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23일 열린 신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민과 함께 건강, 함께 안전, 행복한 전주'를 비전으로 한 보건·의료분야 7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7대 추진 방향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공공의료사업 활성화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체계구축 △치매안심도시 실현 등이다.

먼저 시는 건강한 삶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올 한해 신체활동과 비만, 영양, 절주, 금연, 구강, 심뇌혈관질환 등 개별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임신부와 자녀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지원 정책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가 지원되고, 난임 진단 검사비와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비용지원이 새로 추진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보호 형평성 체계도 강화된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전주시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위한 여담 치료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 대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과 저소득층 암환자·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독거노인·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지속 제공된다.

이와 함께 치매감별검사비를 확대

지원하고, 치매 진단 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치매환자의 증상에 따른 단계별 조호물품도 확대 지원한다. 현재 4개 동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마을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 시는 시민의 마음을 돌보는 마음치유사업과 지역사회 중심의 정

신건강증진, 중독관리 체계구축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도 강화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시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시민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새로운 정원 디자인 발굴 나선다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연계 '시민작가정원' 공모전 진행

전주시는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전주월드컵광장에서 진행될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해 '시민작가정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새롭고 창의적인 정원 디자인을 발굴하고, 정원산업 성장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공모전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치도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공모전 출품 작품 중 3개 작품을 뽑아 전주월드컵광장 내에 50㎡ 규모로 조성토록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작품마다 1000만원을 조성비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 공모전의 주제는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의 주제와 동일하게 '나의 정원, 나의 도시, 우리의 내일'이며, 부제로는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다.

공모 기간은 2024년 1월 31일까지로, 참가 신청 접수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선정된 작품에 대한 시상금 대상 1개 작품에 상장과 200만 원,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 1개 작품에 상장과 100만 원이 수여된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및 박람회 공식 누리집(www.js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정원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창의력개발을 목표로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정원 디자인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보이고, 전주시를 정원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확대

전주시, 기존 차상위계층 이하 1인 가구-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전주지역자활센터·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전주시는 무료 서비스 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거동불편 노인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희망자가 무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는 무료 서비스 확대하기 위해 전주지역자활센터와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당장 이달부터는 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차상위계층 이하 노인에게 전년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3월부터는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차상위계층 초과자를 시작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서비스를 넓혀간다.

특히 오는 3월부터 확대될 병원동행 서비스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해당 분야 은퇴 인력이 2인 1조로 불려 노인의 병원 동행을 돕는다.

이와 관련, 전주시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는 동행매니저가 병원 이동부

터 접수 및 진료 후 귀가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일 3시간, 최대 주 1회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작년부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한 고은하 전주지역자활센터장은 "병원동행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한 번 이용하셨던 분들이 또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다. 동행매니저인 요양보호사분들도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로 전문성 있는 은퇴 인력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거동불편 고령자의 병원 접근성을 강화하여 내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지로드, 설 맞아 전주 호성동 취약계층 위해 100만원 기탁

호성동주민센터(동장 소민호)는 (주)지로드(대표 김철성)에서 23일 설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지로드에는 2005년에 설립된 도로 안전시설 제조업체로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각종 특허를 접목한 주정차금지 표지, 울타리, 알루미늄 교량 난간 등을 제작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사업체이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철성 대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후원금을 기탁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소민호 동장은 "(주)지로드에 큰 감사를 드리며, 기부자의 뜻을 헤아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가 전주시청을 찾아 설 명절 맞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 성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성금 1000만원 기탁

전주시는 23일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이재수)가 시청을 찾아 설 명절 맞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 성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완산구 협의회와 덕진구·완주군 협의회 회원들이 함께 마

련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명절나기 지원을 위해 뜻을 모았다.

전달받은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주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사업에 사용된다.

이재수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회장은 이날 "우리 주변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는 도내 1,205개소의 회원업체가 등록한 전기공사업체에 근거한 법정단체이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